

일본 현지 동향 및 우수 행정사례

2021. 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 ☐☐ 목 차 ☐☐ ☐☐

I. 일본 현지동향

- 1. 스가 총리, 주류 거래중단 관련 방침 사죄 1
- 2. 도쿄올림픽 티켓 수입 급감 전망 1
- 3. 일본 고용시장 동향 2
- 4. 日 최저임금 인상 관련 동향 3

II. 관광 동향

- 1. 한일 관광교류 현황 5
- 2. 관광시장 동향 6
- 3. KTO 도쿄지사 코로나 대응사업 전개 8

III.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주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1. 풍부한 삼림자원으로 마을 만들기 9
- 2. '건조'로 폐기 채소에 새로운 가치를 14
- 3. '에시컬 소비'를 전국으로 18
- 4. '나눔'으로 더 이어지는 지역으로 23
- 5. 상점가에서 시작되는 마을 만들기 27
- 6. 공정무역 구마모토 모델 구축으로 31

I. 일본 현지동향

※ 자료출처 : 주일대사관, 현지 언론보도 등

① 스가 총리, 주류 거래중단 관련 방침 사죄

- 스가 총리는 7.14 주류 제공 음식점 대상 거래중단 방침을 두고 혼란이 발생한 점과 관련해 기자단에 ‘많은 분께 대단히 불편을 끼쳤다’ 고 사죄함.
 - (관련 경위)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7. 8 기자회견에서 주류 제공의 지속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음식점 대책으로서 ① 각 음식점에 융자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책 준수 설득 및 ②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음식점과의 거래 중단 요청 방침을 표명하였으나 여야당 및 업계 단체 항의에 직면, 일본 정부는 동 방침을 ①7.9, ②7.13 각각 철회
 - 스가 총리는 기자단에 ‘7. 7일 실무진 설명 당시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고 강조하고 니시무라 대신에 대해서는 ‘밤낮으로 감염방지를 고민하며 여러 대책을 고안하고 있다.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옹호하며 니시무라 대신의 유임 의사 표명
 - 니시무라 대신은 7.14 중의원 내각위원회 폐회 중 심의에서 금번 요청 및 방침과 관련 ‘가급적 많은 분들의 협력을 얻고자 했던 본인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발언’ 이라고 설명하고 금융기관에 설득 요청이 ‘음식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융자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절대 아니라’ 고 해명

② 도쿄올림픽 티켓 수입 급감 전망

- 도쿄올림픽 수도권(1도·3현) 및 홋카이도, 후쿠시마현 개최 경기 무관중 결정 관련, 패럴림픽을 포함한 대회 전체 티켓수입이 당초 상정의 900억엔*에서 수십억엔 규모로 급감할 전망이다 7.12(월)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됨.

* 2020년 말 시점 조직위 전체 예산의 12%에 상당

※ 42개 경기장 중 724세션(96.5%)이 무관중

- 대회조직위 수지 적자는 확실시되며 공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도쿄도와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협의는 대회 이후가 될 전망
- 무토 도시로 조직위 사무총장은 7.11 NHK 방송에 출연해 ‘대회 이후 무거운 과제에 대해 관계자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며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는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인식 표명

3 일본 고용시장 동향

1. 청년층 이직률 상승

-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고용상황 악화가 계속되면서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있음.
 - 日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직자는 총 319만명으로 2019년 대비 약 10%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의 경우 입사 3년 이내 퇴직자가 약 15만명에 이르며, 특히 2017년 대졸자의 경우 입사 3년 이내 퇴직 비율이 전체의 32.8%에 이르는 등 과거 10년간 최고치를 갱신
 - 타 업종으로부터 유입이 많은 업종은 △IT·통신 분야 △재택근무로 주택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 건설·부동산 분야 등
- 청년층 이직률 상승에 따라 향후 他 선진국 대비 직무 유동성이 낮았던 일본 젊은 세대의 유동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사원 비율이 45.8%(2017년)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 등 일본식 고용은 성장력이 감소한 기업에 인재가 정체되는 사태로 이어지는 바, 유동성 신장이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을 위한 과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2. 실업률 상승 등 고용악화 지속

- (완전실업률 3%대) 日 총무성이 6.29 발표한 2021.5월 완전실업률은 3.0%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여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됐으며 후생노동성이 同日 발표한 2021.5월 유효구인배율도 1.09배로 보합세를 보이는 등 고용 악화 양상을 보임.
- 완전실업률이 3%대로 진입한 것은 2020.12월 이후 처음으로, 2021.4월에 발령된 제3차 긴급사태선언 영향 등이 향후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상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
- 경기 선행지표인 신규 구인수는 전년 동월대비 7.7%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동월과 대비하면 26.9% 감소했으며 유효구인배율도 2020년 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고용상황 대폭 회복은 요원한 상태

4 日 최저임금 인상 관련 동향

- (최대 상승폭) 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7.14(수)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기준을 28엔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 상승폭임.
 - 동 기준대로 개정될 시 최저임금의 전국평균은 현행 902엔에서 930엔으로 상승(상승률 3.1%)하며, 기존에는 전국 도도부현을 A,B,C,D 그룹으로 나누어 개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심의회가 지역별 물가 등을 참고로 하여 도도부현별 최저임금을 제시했으나 금번에는 전국 일률적 인상 단행
 - 동 최저임금은 2021.10월부터 적용되며, 日 정부는 향후 사용자측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정도 인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개선 조성금제도를 확충할 방침
 -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된 2020년에도 필수인력(essential worker) 대우 개선 및 소비 환기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기타 국가*와 대비시 금번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상승폭이 현저히 높지는 않다는 평가
- * 2020년 기준 영국 6.2%, 한국 2.87%. 독일 1.7% 인상

- **(총리 의중 반영)** 日 정부는 2016년도 이후 디플레이션 탈피 등을 통한 경제 재생을 위해 최종적으로 ‘1,000엔’ 수준의 최저임금을 목표로 해왔으며,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관방장관 역임 당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집착해온 스가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
- **(지방이주 촉구)**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의 이주가 확산된바, 日 정부의 수도권-지방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방 이주 움직임을 견지하려는 의향이 노정됨.
- **(중의원선거 의식)** 금번에 전국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日 정부가 지역별 격차 확대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향도 반영된 것으로, 후생성 간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보호 목적도 있으나, 서민의 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등 중의원선거를 의식한 행위’ 라고 언급함.

II. 관광 동향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1 한일 관광교류 현황

□ 방한 외래객 통계

연도	방한 외래객		방한 일본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5	13,231,651	-6.8	1,837,782	-19.4	13.9
2016	17,241,823	30.3	2,297,884	25.0	13.3
2017	13,326,690	-22.7	2,311,242	0.6	17.3
2018	15,346,879	15.1	2,948,527	27.6	19.2
2019	17,502,623	14.0	3,271,706	11.0	18.7
2020	2,519,118	-85.6	430,742	-86.8	17.1
2021. 누계	420,187	-80.4	7,117	-98.3	1.7
2021. 6월	77,029	108.5	875	75.7	1.1

□ 방일 외래객 통계

연도	방일 외래객		방일 한국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5	19,737,409	47.1	4,002,095	45.3	20.3
2016	24,039,053	21.8	5,090,302	27.2	21.2
2017	28,691,073	19.3	7,140,438	40.3	24.9
2018	31,191,856	8.7	7,538,952	5.6	24.2
2019	31,882,049	2.2	5,584,597	-25.9	17.5
2020	4,115,900	-87.1	487,900	-91.3	11.9
2021. 누계*	96,300	-97.6	8,300	-98.3	8.6
2021. 6월*	9,300	262.6	800	555.7	8.6

* 잠정치

□ 한일관광교류 통계

연도	방한 일본인		방일 한국인		양국 교류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2015	1,837,782	-19.4	4,002,095	45.3	5,839,877	16.0
2016	2,297,884	25.0	5,090,302	27.2	7,388,186	26.5
2017	2,311,242	0.6	7,140,438	40.3	9,451,680	27.9
2018	2,948,527	27.6	7,538,952	5.6	10,487,479	11.0
2019	3,271,706	11.0	5,584,597	-25.9	8,856,303	-15.6
2020	430,742	-86.8	487,900	-91.3	918,642	-88.4
2021. 누계*	7,117	-98.3	8,300	-98.3	15,417	-98.2
2021. 6월*	875	75.7	800	555.7	1,675	280.1

2 관광시장 동향

□ 일본 코로나/백신 중심 시장 동향

◆ 2021년 6월 방일객 수 9,300명 (전년 동월 대비 262.6%)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방일 외래객 수 저조
- 2021년 6월 방일한국인 수 800명 (전년 동월 대비 555.7%)

○ 일부 지역,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발령 중(7.12~8.31)

- 코로나19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당분간 감염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 : 2개 지역(도쿄, 오키나와)
 - *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지역 : 3개 지역(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 *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 : 4개 지역(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8.2~8.31)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중점조치 차이점

구 분	긴급사태선언	만연방지 중점조치
대상지역	도도부현	정부가 대상으로 한 지역 중 해당 지자체장이 세부적으로 재지정
대응	사업자 대상 휴업, 영업시간 단축 요청·명령, 외출자숙요청	사업자 대상 영업 시간단축 요청·명령
벌칙	명령에 위반한 사업자 대상 30만엔 이하 과태료	명령에 위반한 사업자 대상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 백신 접종 인원 48,270,230명(2회 접종자 34,323,238명/7.29 기준)

* 40~50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검토 중

○ 수도권 지역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무관중 실시(7.23 개막)

- 수도권(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및 후쿠시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올림픽 무관중 실시
- 미야기, 시즈오카 지역, 관람객 상한을 수용 정원의 50%이내 및 최대 1만명까지로 제한하여 실시

○ 백신여권 발급 개시(7.26, 우선은 증명서 인쇄 형태, 이후 앱 제공 예정)

- 서면형식으로 당사자 이름, 국적, 여권번호, 접종날짜 등 기재(5개 국가는 입국시 격리면제) * 추후 전자 발급 추진예정
- 경단련(한국 전경련 해당기관),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이벤트 입장 제한 완화나 음식점 할인 혜택과 연계하는 등 백신 여권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에 제언

□ 일본 아웃바운드 및 방한시장 동향

◆ 2021년 6월 일본인 출국자 수 30,700명 (전년 대비 187.9%) * 잠정치

항공사	조치	내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 '21.8.31)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21.8.31 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7.31 주 2편(수,목) 운항, 21.8.1~8.31 주 3편(수,목,토) 운항) 나고야-인천(~ '21.8.31 주 1편(토)운항) 후쿠오카-인천(~ '21.7.31 비운항, 8.12 운항)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7.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8.31, 주 5편(월, 화, 목, 금, 일) 운항 21.7.1~8.31 주5편(월 화목금일) 운항, 7.1, 7.5, 7.6, 7.8, 7.12, 7.13, 7.16, 7.19, 7.20, 7.22, 7.26, 7.27, 7.29 운휴) 나고야-인천(~ '21.8.31 주 1편(금) 운항, 7.2, 7.9 운휴)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7.31) 후쿠오카-인천(~ '21.8.31 비운항)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9.15)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21.9.15 운휴) 간사이-인천(~ '21.9.15 운휴) 후쿠오카-인천('21.7.1~9.15 비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0.30)
진에어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8.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21.8.31, 주 1편(수) 운항) 간사이-인천(~ '21.7.31 운휴) 후쿠오카-인천(~ '21.7.31, 매주 화요일 운항 * ~' 21.6.1, 6.8, 6.15, 6.22, 7.6, 7.20 운휴)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8.31)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20.10.16~, 주 3편(일, 화, 금) 운항)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8.31) - 후쿠오카-인천(~ '21.7.31 비운항)
	감편운항	나리타-인천 (~ '21.8.31 주 1편(토) 운항) 간사이-인천 (~ '21.7.31 주 1편(일) 운항, 7.4, 7.18, 7.25 운휴)

- 관광목적 신규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행업계 지원 및 수용태세 개선 중심의 정책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 조치 지속(비즈니스 트랙 포함)
- 입국자 전원 PCR 검사판정서 제출 및 공항내 PCR 검사 후 입국허가
- 주요여행사(JTB 등) 해외여행상품 판매 중지(9월 출발분)
 - 해외여행 2021.10월 이후로 전망
- 일본여행업협회(JATA), 국내외 관광재개 로드맵 발표(7.8)
 - 2021.12월부터 일부 국가와 인적교류 재개 목표(격리면제 포함)
 - 유럽, 미국(하와이/괌 포함) 등 국가 대상 관광재개 협의 추진

3**KTO 도쿄지사 코로나 대응사업 전개****□ OTA(온라인 여행사) 방한 홍보 캠페인**

- 라쿠텐 트래블 등 4개사(2021.6월 ~ 2022.3월)

□ 발효식품/미식 테마 럭셔리 랜선여행 실시(7.31)

- JALPAK 공동 울산 복순도가 양조장 탐방 및 손막걸리 체험(50명 마감)

□ 한국 우수 문화 소개전(문화원, 테마 : 한국의 마식락)(7.22~9.28)

- 문화원, 공사, 콘진원, AT 공동 운영

□ 도쿄 시내 버스정류장 옥외광고 및 SNS 해쉬태그이벤트(7.26~8.10)

- 도쿄 올림픽 연계 한국관광 100선 활용 주요 지역 버스정류장 옥외광고 실시

□ 2020 도쿄 올림픽 기간 중 “한국관광 여름 축제 2021” 전개

- (8.1) 한국 피부과 전문의 피부케어 설명회(문화원)(문화원, 공사 SNS 업로드 예정)
- (8.1) 한국 년버벌 “브레이크 아웃” 상영회(문화원)(문화원, 공사 SNS 업로드 예정)
- (8.6) 마쓰시게 유타카(고독한 미식가 주인공)와 함께하는 한국음식 체험회 SNS 라이브 방송(문화원)
- (8.6~7) 한국 뮤지컬 “세종 1446” 풀버전 상영회(문화원 등)

III.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 자료출처 :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 일본의 (재)지역활성화센터가 발간한(2021. 7.) ‘지역활성화사례’ 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지자체 시책에 참고하고자 함.

(주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①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마을 만들기 - 나무 하나를 통째로 활용하는 대처 -

도쿄도(東京都) 히노하라무라(檜原村)

○ 임업 이탈의 가속

히노하라무라는 도쿄도 타마지구 서부에 위치하고 면적의 93%가 삼림으로 뒤덮인, 도쿄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이 풍부한 지역이다. 도심 신주쿠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이면 쉽게 방문할 수도 있다.



히노하라무라. 중앙이 면사무소, 왼쪽 구석이 초등학교

전쟁 전에는 양잠이나 솥장이가 성행했지만, 전시 중 군수용 자재의 수요급증과 전후 복구를 위한 벌채가 진행되어 ‘민등산’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1950년경부터 통나무 비계 및 건축용재로서 삼나무와 편백나무 심기에 마을사람이 총동원되었고 현재는 삼림 면적의 약 60%를 인공림이 차지한다.

이처럼 히노하라무라의 기간산업은 임업이지만 외국산 재료 수입의 영향으로 목재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져 임업경영을 압박하고, 또한 인근 지역으로의 취업이 이전보다 쉬워진 점이 더해지면서 임업 이탈이 가속화되고 산림의 황폐화를 우려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 내 제재소는 있었지만 가공업 등 목재산업의 진흥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도 타격이었다.

○ 히노하라무라 토이 빌리지 구상

현재 목재가격은 나무 나이가 60년을 넘고 직경 30센치, 길이 4미터 정도의 삼나무가 한 그루에 3,000엔 정도다. 이 가격에 안정적인 임업경영은 어렵다. 그 때문에 히노하라무라에서는 임업 사업체와 제재소가 중심이 되어 ‘히노하라무라 목재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 내외의 다양한 기업을 불러들여 타 업종과의 연계로 ‘나무 한그루 통째로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임업에서 한 그루의 나무 중 그루터기, 가지와 잎, 휘어진 재료, 얇은 통나무 등은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지 않고 산에 버려져 왔다. 수율은 한 그루의 거의 절반을 버려온 것이다. 따라서 버려진 부재의 개성을 살려 나무 하나를 전부 사용하는 챌린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듯 히노하라무라는 마을의 미래를 지탱하는 것은 산림자원 밖에 없다는 ‘히노하라무라 목욕1)·목재산업 추진 기본구상’(히노하라무라 토이 빌리지 구상)을 책정해 나무 장난감을 중심으로 한 목욕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1) 목욕(木育)이란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교육개념 및 교육용어로, 아이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나무를 접하고, 나무에게 배워, 나무와 살아가는’ 대응이다.

새로운 목재산업을 부흥시킴에 있어서 나무 장난감의 국산 자급률은 불과 몇% 정도로 침체되어 있기에 앞으로의 성장이 전망되고, 국내에는 나무 장난감에 특화된 지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도쿄에 ‘나무 장난감 마을’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임팩트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2019년 오픈한 장난감 공방.
장난감 외에도 일용품을 제작**

2019년 가을에는 토이 빌리지 구상의 핵심이 될 ‘히노하라 숲 장난감 미술관’의 건설 예정지 옆에 ‘장난감 공방’이 오픈했다. 마을에서 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도쿄 체인소즈(이하 당사)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임대계약을 맺은 후 당사는 히노하라무라의 생일 축하품 제작을 비롯한 각종 목제완구의 제작 및 판매, ‘여섯 살이 되면 책상을 만들자’라는 나무꾼 체험과 마을에서 나는 삼나무를 이용한 나의 책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무제품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 일본 최초의 ‘나무 장난감 마을’로

2021년 11월에 오픈 예정인 장난감 미술관에서는 관내에 있는 목제 놀이기구와 완구놀이 뿐만 아니라 인근 숲과 키타아키가와(北秋川)의 맑은 물줄기를 살린 ‘바깥놀이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에서 사는 부모와 아이가 지금까지는 조금 다루기 어려워 멀리했던 ‘나무로 만든 물건’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해 아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자연’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막상 경계하는 것 없이 오히려 편안한 소재와 공간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도시 주민과 나무와 자연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본래의 목욕이 가지는 의의가 아닐까?

미술관의 운영 주체로는 지역 유지가 설립한 ‘NPO법인 도쿄 사토야마 목향회’가 채택되어 오픈을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히노하라 숲의 장난감 미술관. 2021. 11월 오픈 예정

또한, 미술관에는 뮤지엄 샵과 뮤지엄 카페도 병설되어, 샵에서는 ‘메이드 인 히노하라’ 나무 장난감 중심의 국산 목재 완구를 판매하고, 카페에서는 현지에서 재배한 채소 등을 사용한 메뉴를 제공한다.

지역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만든 채소를 카페나 마르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경작포기지의 해소와 함께 생산자의 동기 부여로도 이어져 지역이 한층 더 활기를 띠게 된다.

그리고 장난감 미술관을 목표로 매년 5~8만명의 부모와 아이가 함께 히노하라무라에 방문하도록 하여 사람의 유입을 만드는 것은, 목공작가의 유치로 이어지는 것 외에도 마을 주민이나 지역부흥 협력대가 창업할 때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나무 장난감은 제작에 필요한 기계도 적기 때문에 마을의 ‘모노즈쿠리(만들기) 챌린지 지원사업’ 등의 조성금을 사용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조금씩 목공 작가들이 모여 언젠가 일본 최초의 토이 빌리지가 완성되는 것이다.

○ 30년 후에도 치유를 주는 숲으로

이처럼 풍부한 산림자원을 목재산업과 관광, 환경교육, 음식 등 다각도의 접근을 살려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전후, 지역 주민들이 고생하여 심어놓은 삼나무와 편백나무는 30년 후에 나무 나이 100년의 숲이 된다.

IT를 중심으로 계속 진화하는 도쿄지만 사람들은 30년 후에도 변함없이 치유를 위해 숲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때에 히노하라무라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새로운 산림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② ‘건조’ 로 폐기 채소에 새로운 가치를 - 지역과 함께 지속적인 푸드로스 대책 -

교토부(京都府) 교토시(京都市)

○ 기대되는 음식의 미래를 만드는 회사

주식회사 hakken은 ‘테크놀로지와 사람의 거리를 가까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경로를 만든다’ 를 이념으로 하는 회사다.

상식을 업데이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풍요로운 1초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가상행렬을 만드는 번호표 앱 개발을 시작. 코로나를 거치면서 음식점의 비즈니스 업태에 개혁을 가져올 ‘#이에즈나 키친’ 을 기획·개발했다. 식재료 배달, 요리교실, 온라인 회식의 세 가지를 결합한 클라우드 레스토랑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요리를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을 매칭하는 음식업 마켓 플레이스 ‘Bites!’ (2021년 6월 베타판 출시 예정)의 개발, Social Good 사업으로 환경성과의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 프로젝트 및 사회성 있는 신규 사업의 콘셉트 설계 등 식품 분야를 축으로 테크놀로지와 사회성을 무기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창업자인 타케이 준페이와 프로젝트 리더 타무라 사토시가 수년 전부터 특히 과제로 인식하고 있던 푸드로스에 깊이 파고들기 위해 시작한 건조 폐기채소 사업을 소개한다.

○ 건조 폐기채소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의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데도 폐기되고 있는 식품은 연간 612만 톤으로 그 중 채소가 220만 톤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일본의 푸드로스 총량은 약 2,800만 톤).

한편, 세계에서는 9명 중 1명이 영양 부족, 일본에서는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에 놓여있다. 또한, 지금 이 1분 동안에도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인해 축구장 27면의 산림이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식량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 이상의 식량 폐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을 위한 산림벌채는 계속되고 있고, 그 식량이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널리 닿고 있지 않다는 건과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일반적인 푸드로스 대책으로는 폐기된 채소를 상자에 넣어 배송하지만 신선 채소의 경우는 배송과 보관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대량으로 배송하면서 그만큼 소비 단계에서도 폐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건조 폐기 채소 프로젝트에서는, 폐기되는 채소를 수확지 주변에서 건조시켜 배송과 보관비용 부담을 해결하고, 조리하기 쉽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맛있는 상품으로 업사이클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메리트가 큰, 보다 지속적이고 무리없는 푸드로스 사업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 집약형과는 달리 수확지 주변에서 건조·가공하는 ‘분산 생산’은 비용 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고유의 과제를 마주 볼 수 있고, 푸드로스 절감 이외의 지역 과제에도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 커스터마이징(customize)가 가능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생산 사업이다.

또한, 단순한 온풍 건조를 사용함으로써 도입비용 절감 및 오퍼레이션을 간소화하고 효과적인 살균과 단시간 건조를 실현하여 신선 채소의 약 10분의 1 중량과 20배의 소비 기한으로 소매 및 가정 소비의 다양성을 높인다.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지역연계 및 자사 사업의 SDGs·CSV(공유가치 창조) 화, 생산자에게는 지금까지 폐기되고 있던 채소가 수익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유 과제에 임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에, 소비자에게는 건강 증진 및 조리 시간의 단축이나 재해 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여 일본에서 폐기되는 채소의 데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폐기되는 채소가 없어질 때까지 전국에서 계속 건조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 로컬에 뿌리를 내려 전국으로 전달

이 건조 폐기 채소 프로젝트에 공감하고 협업해 줄 지자체를 찾기 위해 전국 30곳 정도를 돌며 직접 시정촌 직원과 시장·정장과 협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구마모토현 다카모리초,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와 인연이 닿아 협업하게 되었다.

4월에는 구마모토현의 다카모리초와 아소 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타이미(도쿄도 토시마구), 히긴<히고은행> 오피스 비즈니스 주식회사(구마모토시)와의 제휴 협정을 체결해,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인재활용, 교육 사업 등에서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다카모리초와 아소 농협, 타이미, 히긴 오피스 비즈니스(주)와의 제휴협정 체결식



야마나시현 니라사키시에서 건조기를 빌려 시제품을 작성

또한, 히로시마현에서는 아키타카타시의 2021년도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 외에 ‘D-EGGS PROJECT BY 히로시마 샌드박스’의 참가 기업으로 채택되었다. 사회시스템의 레질리언스 강화(순환 경제화)를 테마로 건조 채소 프로젝트와 Bites!를 이용한 스크럼 이노베이션을 실증해 갈 것이다.

상품 개발에서는 브랜딩 플래너, 마케터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멤버가 가입하고 있으며 Ajinomoto Group Accelerator의 채택 기업으로서 아지노모토 주식회사의 식품 개발 연구원 등과 함께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첫 번째 출시 상품으로는 평소 식사에도 부담없이 건조 채소를 조금 더할 수 있는 식재료 상품과 건조 채소를 오일에 절여 먹는 조미료 2종류를 개발하고 있다.

2021년 가을에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한정 판매와 겨울에는 일반 판매 개시를 예정하여 상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응원·참여해 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대리점의 모집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인력 모집도 시행해 갈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목표로

건조 채소는 장기 보존성과 맛의 응축, 조리의 용이성 등으로 최근 서서히 인지도를 올리고 있지만, 상품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의견 청취를 시행했을 때에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음식점, 어부, 농가, 바리스타 등 다양하고 풍부한 채널이 등록된 ‘#이에츠나 키친’ 과 함께 건조 채소를 사용한 레시피의 제안과 ‘Bites!’ 크리에이터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등 분산 생산의 구조 구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생활에 도입하기 위한 구조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될, 사람이 만들어낸 장대한 모순에 도전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미소짓게 하는 그런 이상을 그리는 프로젝트이다.

앞으로도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확대해 가겠다.

③ ‘에시컬 소비²⁾’ 를 전국으로 - 4단계로 인지도 향상을 목표 -

도쿠시마현(徳島県)

도쿠시마현은 소비를 통한 환경, 사람과 사회, 지역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에시컬 소비’ 를 도쿠시마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17년 2월에 ‘도쿠시마 에시컬 선언’ 을 실시했다.

본 현에서는 에시컬 소비의 보급을 향한 4단계 사업을 시행 중이다.

○ 먼저 알려야 할 활동

첫 번째 단계로 에시컬 소비라는 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강연회나 포럼을 개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계몽활동을 해왔다.

그중에서도 2019년도에는 ‘파워 프로모션 사업’ 으로 전국 최초의 에시컬 소비에 관한 조례 ‘도쿠시마현 소비자 시민사회의 구축에 관한 조례’ (통칭 에시컬 조례)에서 설정한 ‘도쿠시마현 소비자 시민 사회 추진 기간’ 의 5월을 중심으로, 현내 주요 타운 잡지·무료광고 신문이나, 현내 지자체 홍보지에 에시컬 소비의 관련 기사를 일제히 게재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폭넓은 세대에 에시컬 소비 보급을 목표로 했다. 5월은 국가의 ‘소비자의 달’ ‘세계 공정무역의 달’ 이기도 하다.

2021년도에도 SNS(Twitter@awaethical)를 활용한 에시컬 소비 보급 계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다음은 생활에 도입하는 교육

다음 단계로, 에시컬 소비라는 말을 알게 되면 ‘에시컬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고 싶다’ 라는 의욕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에시컬 소비를 배울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

2) 지역활성화나 고용 등을 포함한 사람·사회·지역·환경을 배려한 소비 행동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현내 3개 고등학교를 ‘에시컬 소비 리딩스쿨’로 지정하여 에시컬 소비를 배우는 모델을 구축한 후, 현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에 에시컬 소비를 연구·실천하는 ‘에시컬 동아리’를 결성했다. 또한, 특별지원학교(특수학교)에서 현지 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 생산·지역소비의 신상품 개발 및 에시컬 작품전의 개최 등도 실시했다.

현민·사업자 대상으로는 소비자 대학교 대학원에 ‘에시컬 소비 과정’을 개설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초·중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에시컬 쿠킹’과 ‘에시컬 교실’을 실시하여 참가자가 에시컬 소비를 체험하도록 했다.



초·중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에시컬 쿠킹’

에시컬 쿠킹에서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식재와 공정무역 상품을 활용. 또한, 에시컬 교실에서는 에시컬 소비로 이어지는 인증 마크를 배우고, 실제로 먹는 것을 통해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푸드 체인을 체감하도록 했다.

○ 생활 속 에시컬 소비의 실천

셋째 단계는 실제 에시컬 소비를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에시컬 소비 자주선언’을 하는 사업자와 단체를 모집했다. 2021년 5월 1일 현재, 48개 사업자·단체가 선언하여 에시컬 소비의 추진에 임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도쿠시마 에시컬 어워드’ 를 창설했다. 제3회 어워드는 충해(食害) 보호망 설치 활동과 포획한 사슴의 해체, 사슴고기의 레시피 고안, 학생 식당에서의 요리 제공 등에 임해 온 도쿠시마 분리대학이 수상했다. 사슴고기의 보급에 따른 산림 보전의 에시컬 소비를 추진한 것이 평가되었다.



‘도쿠시마 에시컬 어워드’ 표창식

이처럼 에시컬 소비의 보급 추진에 눈에 띄는 공적을 세운 사업자 등을 표창하는 것으로, 현내 사업자 등의 에시컬 소비에 관한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최초가 되는 에시컬 소비의 추진 모체 ‘도쿠시마 에시컬 소비 추진회의’ 를 설치하고 에시컬 소비 자주선언의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와 연계해 에시컬 소비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 에시컬 소비의 범위를 넓히다

마지막 단계로 도쿠시마현에서는 에시컬 소비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나아가 에시컬 소비에 관한 시책을 전국 각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8년도에 ‘에시컬 소비 지자체 서밋’ ,

2019년도에 ‘에시컬 소비 지자체 미팅’ 을 개최하고, 지자체 직원 간 활발하게 교류할 기회를 마련했다. 2020년도는 에시컬 소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대처사례를 소개하는 ‘에시컬 소비 지자체 릴레이’ 영상을 제작했다.



‘에시컬 소비 지자체 미팅’의 모습

또한, 에시컬 소비의 추진에 적극적인 고교생들이 그 대처 내용을 발표하는 ‘에시컬 고시엔’ 을 개최하여 에시컬 소비의 중요성을 전국을 향해 널리 알리고 있다. 2020년도는 ‘우리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라는 주제로, 전국 87개교 중에서 선정된 10개교가 코로나의 역경을 발판으로 크게 비약하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전국으로 발신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도의 ‘도쿠시마현 “윤리적 소비(에시컬 소비)” 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 에서 현민의 에시컬 소비 인지도가 50.8%라는 높은 수치가 되었다. 소비자청이 공표한 2019년도의 전국 에시컬 소비 인지도는 12.2%로, 이에 비교하면 도쿠시마현민은 에시컬 소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대처는 소비자청에서 ‘도쿠시마현 내에서 실시된 에시컬 소비에 관한 대응 사례집’ 으로 정리되어 공표되었다.

도쿠시마현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청 신(新) 미래 창조 전략본부와 연계해 현내 시정촌과 대학, 기업, 지역주민을 비롯한 주변지역(간사이 광역연합, 시코쿠, 주고쿠)과도 협력하고, 계속해서 ‘전국 소비자의 이익’ 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임해 나갈 것이다.

④ ‘나눔’ 으로 더 이어지는 지역으로 - 생산자 응원과 푸드로스 절감을 동시에 실현 -

고치현(高知県) 카미시(香美市)

○ 나눔(스소와케³⁾) 식재료로 일일 정식

“저기, 양과 뽑아 왔어. 나눔이야”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 아이들한테 써줘~”, “일손은 부족하지 않아? 도와주러 올 테니 언제든지 말해.” 고치현 카미시에 있는 작은 식당 ‘나눔 식당 마도’ (이하, ‘마도’)에서 손님과의 일상 대화이다.

마도는 규격 외나 잔품 등의 이유로 폐기되어 버리는 식재료나 마을 유지에게 받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정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이다.

2020년 9월 내가 대학교 4학년일 때 고민가(古民家) 카페의 영업시간 이외에 세를 들어 오픈했고, '21. 4월에 새 점포로 이전하여 재오픈했다.

대표 메뉴는 ‘국 하나와 여섯가지 채소’ 로 매일 바뀌는 정식이다. 모인 재료를 갖고 즉흥적으로 식단을 짜 매일 다른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느날 식단은 이웃 아저씨에게 받은 희귀 품종 호박이 주인공. 이것을 사용한 고로케를 메인으로 가지 된장 볶음, 멸치 샐러드, 무잎나물, 햇생강과 무절임 등을 구성했다.



굴과 고구마 나눔으로 만들어진 메뉴



식재료, 식기 등 모두 ‘나눔’

3) 타인에게 받은 물건이나 이익의 일부 등을 친구나 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

사용하는 식재료의 대부분은 지역 사람들에게 받은 것으로 낭비없이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예를 들면, 상하기 쉬운 재료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받은 양이나 질에 따라 만드는 것을 바꾼다.

대량으로 받았다면 말리거나 절인다. 무의 껍질은 건피라로 한다. 생강의 껍질이나 양배추의 심지는 국물을 우려내 수프로 한다. 그렇게 해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콤포스트에 넣어 퇴비로 하는 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다음의 생산·소비에 이어가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 식당을 차린 이유

원래 농림수산업을 축으로 한 중산간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배우고자 대학에 진학했다. 재학 중에는 다양한 농가 밑에서 일을 도우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사 이벤트를 기획·실행했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지역생산·지역소비와 생산자의 지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는, 나 자신조차도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하여 천천히 맛보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간도 돈도 한정된 가운데 저렴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빵이나 냉동 식품에 손이 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고민하는 나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농가 아주머니에게 받은 나눔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주먹밥이었지만 만든 사람의 배려가 느껴지는 수제 식사에 몸도 마음도 충족되는 느낌이 들어, 이러한 따뜻한 요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지역 모두의 장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 나눔의 가능성은 무한대

우선 상상했던 식당 이미지에 가까웠던 ‘어린이 식당’에 일손을 보태며 일하다가 식재료를 기부 받을 때 컨테이너에 가득 쌓인 폐기 직전의 식재료를 목격했다.

모양이 좋지 않거나 극히 일부가 손상된 것, 다음 재배를 위해 철거하는 등의 이유로 출하할 수 없는 재료들이었다. 식량위기가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의 이 모습. 생산자가 열심히 기른 작물이 간단하게 버려지는 것에 이전부터 분함을 느끼고 있던 나는, 이러한 식재료가 어린이 식당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조를 알았기에 내가 차리고자 하는 식당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폐기되어 있던 채소들

중산간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이라는 커뮤니티 수단을 슬로전으로, ‘나눔을 통한 지역의 연결 만들기’와 폐기 식재료의 사용으로 생산자에 대한 이익 환원과 보람 창출이라는 ‘생산자 응원’, 그리고 ‘푸드로스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막상 식당을 시작해 보니 지역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생각 이상으로 식재료와 물품이 모였다.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식재료를 가져다주는 농가를 비롯해, 받은 것이지만 다 먹을 수 없다며 식재료를 가져오거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품을 양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영업을 시작한 지 반년 이상 지났지만 1일 20식 정도는 채소의 대부분을 나눔만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도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식사하러 와 주어, 폐기 직전이었던 식재료가 다시 맛있게 만들어진 것에 놀라거나 현지생산 재료의 건강한

식사에 만족하는 등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에서 SDGs를 배운 아이들도 마도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점포 이전에 있어 필요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식기류, 테이블이나 의자 등에 대해서도 그 대부분은 지역 사람들에게 양도받거나 만들어 받았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자주 빈집과 고령화가 문제시되지만, 오래된 집에는 많은 물건이 잠들어 있어 기술을 가진 건강한 시니어도 힘에 겨워하고 있다. ‘나눔 식당’이라는 구조가 기능하는데 있어 중산간 지역은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장 설레는 답례

지금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생산자에게 나눔의 대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이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환원할 생각이었지만 순수한 호의가 금전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다른 형태의 답례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게 내 게시나 SNS를 통한 생산자 PR, 농사일 돕기, 공동으로 하는 상품개발·판매 같은 것이다. 현재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 협력농가가 만들고 있는 전통차를 사용한 티 세트의 제공과 찻잎 판매다. 생산자가 즐겁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마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연쇄적인 배려가 지역을 만든다

나눔 식당이라는 이름처럼 마도에서는 ‘나눔의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다. 식재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 조리·제공하는 직원이 있고, 그것을 먹은 사람이 다음의 누군가에게 답례로서 거스름돈이나 메시지를 두고 가고. 생산하는 측과 소비하는 측이라는 격차를 완만하게 뛰어넘어 지역에서 함께 사는 동료들을 배려하는 그 작은 행동의 연쇄가 지역에 낳는 ‘마도(円)’가 미래로 이어지는 지역 만들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상점가에서 시작되는 마을 만들기

- 푸드로스 절감 등 점주가 솔선수범 -

후쿠오카현(福岡県) 기타큐슈시(北九州市)

○ SDGs 상점가 선언

기타큐슈시 고쿠라의 ‘우오마치 긴텐가이’ (우오마치 상점가 진흥 조합)는 JR고쿠라역에서 남북 약 400m에 걸쳐 약 160개 점포가 줄지어 있는 광역형 상가이다. 2018년 3월, 기타큐슈시가 아시아 최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SDGs 추진을 위한 세계 모델도시’ 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긴텐가이는 기타큐슈 ESD 협의회와 연계해 ‘SDGs 상점가’ 를 목표로 하는 것을 선언했다.

처음으로 추진한 것은 지금까지 상점가가 해 온 것을 SDGs의 관점에서 체계화해 우선적 과제를 선별하고 향후 대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 SDGs 인지도가 상승

우오마치 긴텐가이에서는 이전부터 마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아케이드에 투과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LED 조명의 자가발전을 하고, 해체나 신축이 아닌 리노베이션에 의한 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아케이드 내에서 숙식하는 노숙자가 많았기 때문에 NPO 법인과 연계하여 노숙자의 자립지원에 노력했다. 장애인 차별 해소법 시행 이후에는 상점주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가게로 들어가는 등 휠체어 장애인들이 쇼핑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썼다.

특히 상점가에서 주력했던 것은 상점주가 강사가 되어 그 가게만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를 무료로 가르치는 ‘득보는 마을의 세미나(우오제미)’ 이다.



SDGs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점가에 현수막 게시

SDGs 상점가를 목표로 하면서 SDGs의 17개 목표 중 4번인 ‘양질의 교육을 모두에게’를 통해 11번의 ‘계속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최종 목표로 삼아 ‘우오제미’는 그 실현을 향한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SDGs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점가에 SDGs 현수막을 게시하고 SDGs에 관한 세미나와 이벤트를 매달 개최했다. 그 결과 인지도는 기타큐슈 전체에서 20% 정도였지만, 우오마치 상점가에서는 2019년 40%, 2020년은 52%로 상승해 갔다.



SDGs 상점가 PR영상 ‘배움의 끝에’

또한, SDGs에 임하는 상점가를 PR하는 동영상 ‘배움의 끝에’를 제작한 결과, 제1회 ‘SDGs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의 최우수상을 수상.

게다가 시민과 가까운 상점가가 SDGs를 실천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다’라는 SDGs 이념의 달성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 평가

되어 제3회 ‘재팬 SDGs 어워드’의 최우수상(내각총리대신상)도 수상했다.

○ 곤충식 연구도

상점가가 솔선수범해 SDGs에 대응함으로써 상점주의 의식도 변화하여 여러가지 활동에 스스로 동참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 시장에서 유통하기 어려운 규격 외의 채소를 판매하여 푸드로스 절감에 노력
2. 개발도상국과의 ‘공정무역’에 착수하거나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묶음 구입으로 매입하고 그것을 판매
3. 소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 사료가 되는 곡물을 먹는 것이 식량 절감으로 이어지므로 채식을 기본으로 한 ‘마크로바이오틱스⁴⁾’나 ‘비건’ 식품을 판매
4.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멈추고 종이빨대를 사용
5. 여러번 우려낸 차를 맛있게 먹기 위해 전용 ‘차폰(お茶ぽん)’ 판매
6. 기모노를 다시 풀어서 바느질하면 보자기로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에코백 대신 보자기 사용하는 것을 권장

이러한 대처 외에도 전국 유수의 죽순 산지인 고쿠라에서는 최근 20년간 방치된 대나무 숲이 40%나 증가한 것으로부터 3만개의 대나무 등불로 고쿠라성을 비추는 ‘고쿠라성 대나무 등불’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대나무 숲 피해 산림의 대나무를 베어내어 대나무 등불을 제작한다. 별목한 대나무는 대나무칩·대나무숯·대나무 파우더 등으로 재사용하여 ‘대나무 해(害)에서 대나무 재(財)를’이라는 테마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는 식량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곤충식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4) 장수식 또는 마크로바이오틱스는 건강을 위한 식생활법 또는 식사 혹은 식이요법을 말한다.

스스로 곤충을 먹고 단백질을 얻는 곤충식을 넓혀 가고 싶다.
도쿄농업대학과 연계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아 상점가에
곤충식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 SDGs를 나의 일처럼

우오마치 긴텐가이의 고객은 원래 중장년층 여성이 중심이었지만
SDGs의 활동으로 젊은 층의 손님도 많아졌다. 단, 코로나로 인하여
소비자는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이외에는 사지 않게 되었다. 도매
상에서 매입한 물건을 매장에 진열해놓고 있는 것만으로는 팔리지 않게
된 것이다.

반면에, 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무침거나 자연 유래 등 그 상품
에서 가치를 찾아내면 비싼 것이라도 구입해 준다. 사람과 사회, 환경을
배려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 이른바 에시컬
소비 시대가 된 것이다.

2021년은 우오마치 긴텐가이가 일본 최초로 도로상에 아케이드를 건설
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은 상점가에 오면 SDGs의 이로부터
실천까지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이 실제 장사로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SDGs에 힘쓰고 있는 우오마치 상점가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

SDGs에는 ‘나의 일’ 처럼 임해 주었으면 한다. 지구온난화만 해도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게 될 남쪽 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오마치
긴텐가이도 불과 해발 3m 정도 거리에 있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다 속에 잠겨버릴 우려도 있다. 지구적 과제, 사회적 과제
에도 나의 일로서 인식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현해 가고자 한다.

⑥ 공정무역 구마모토 모델 구축으로 - 아시아 최초 '시티 인증' 으로부터 10년 -

구마모토현(熊本県) 구마모토시(熊本市)

○ 공정무역이란?

최근 카페나 숭 등에서 '공정무역' 이라는 말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말은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공정무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빈곤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평하고 대등한 무역' 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지속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여 그들의 생활과 생산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 무역과 비즈니스, 소비자 운동, 국제협력을 의미한다.

○ 아시아 최초 공정무역 시티로

구마모토시는 영국에서 공정무역 타운이 처음 탄생한 2000년경부터 이미 공정무역을 확산시키는 활동이 민간단체에 의해 열심히 이루어져 왔다. 지역 모두의 활동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2010년에는 구마모토시 의회에서 '공정무역 이념 주지에 관한 결의' 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다음해 2011년에 구마모토시는 아시아 최초, 일본 최초의 공정무역 시티로 인정되었다.

또한 공정무역 시티(타운)란 관민이 협력하여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도시를 뜻한다. 현재는 런던과 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2000여개 이상의 도시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구마모토시 이외에 나고야시, 가나가와현 즈시시, 하마마츠시, 삿포로시, 미에현 이나베시가 인정되고 있다.

○ 10년의 활동

올해 구마모토시는 공정무역 시티 인정으로부터 10주년을 맞이했다. 지금까지 공정무역의 이념을 알리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예를 들어, 매년 11월에는 구마모토현 내 단체가 구마모토시에 모여 중심 시가지에서 마르쉐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공정무역에 대해 배우거나 원두커피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초콜릿 만들기를 체험하면서 카카오 재배 현지에는 어린이가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배움의 장소로도 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국제화 거점 시설인 구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에 공정무역 상품과 함께 구마모토의 지역생산·지역소비품,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취급하는 ‘Link Cafe’ 를 상설. 이곳에서는 커피와 홍차를 즐기면서 공정무역의 활동을 알 수 있다.

인정으로부터 3년 후인 2014년에는 ‘공정무역 시티 구마모토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8회 공정무역 타운 국제회의 in 구마모토’를 개최했다. ‘구마모토에서 세계로, 사람을 잇는 공정무역’을 테마로, 세계 22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다.



공정무역을 만화로 소개



공정무역 시티 구마모토의 탄생

그리고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11월을 ‘공정무역의 달’로 정하고, 마르쉐 등 지금까지의 활동과 더불어 민간단체와 연계해 웹을 활용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단체에서도 ‘공정무역 시티 구마모토 추진위원회’에 의한 만화 제작과 ‘NPO 동아시아 공생 문화센터’에 의한 ‘구마모토 공정무역 커피’ 개발 등 10주년을 계기로 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념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구마모토시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공정무역 시티로 인정된 2011년의 약 50곳에서 2021년에는 109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보다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구마모토시는 내각부의 ‘SDGs 미래도시’로 선정되어 2019년 8월에 ‘구마모토시 미래도시 계획’을 책정했다. 공정무역은 SDGs의 모든 것과 관계하고, ‘빈곤을 없애자’, ‘만드는 책임 사용할 책임’, ‘평화와 공정을 모든 사람에게’ 등 특히 8개 항목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향후 폭넓은 분야의 기업이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SDGs와 하나 된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발생으로 인해 구마모토시의 상징인 구마모토성을 포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공정무역 시티(타운)를 비롯해 전 세계로부터 격려와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도 복구·부흥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4월, 구마모토성 천수각의 복구가 완료되었다. 특별공개는 코로나19로 부득이 연기되었지만 가까운 시일내 시민과 국내외의 여러분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보답하고 싶다.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이어온 관계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국제공헌과 인권 존중의 정신을 소중히 하는 공정무역의 이념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추진해 갈 것이다.